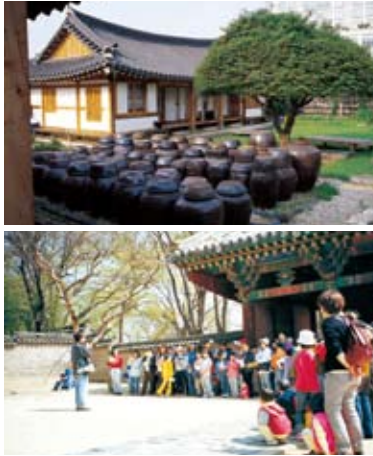


01

전통 ‘명품’, 박물관이 아니라 생활 속으로

전주시 지역문화기반조성사업 : 전통짜맞춤기술 DB구축 및 활용을 통한 상품개발 제안

우리에게 전통에 대해 마음껏 얘기하고,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도시가 있다는 것은 든든한 자산이요, 축복이다. 바로 전주다. 전주는 ‘전통’으로 통(通)한다. 전통문화의 지적 자산이 가장 풍부한 도시, 한(韓)스타일(한옥, 한지, 한식, 한소리, 한방)로 명명되어진 우리 민족의 삶의 형태가 가장 잘 나타나있는 도시. 전주는 느리지만 올곧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고 이제는 ‘전통’이라는 콘텐츠를 그 어느 지역보다 제대로 꽃을 피운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어 준 전주한옥마을을 필두로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전당’을 유치, 건립중이며 한스타일진흥원이 2012년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하드웨어 뿐 아니라 전통문화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전통공예기술의 산업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전통짜맞춤기술의 DB구축 및 상품개발 사업도 그 중 하나다. 단순히 복원하고 구경하기 위한 전통이 아닌 실생활에서 직접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전통! 전주에서 만나는 전통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전주시내풍경



전통의 현대화, 말은 쉽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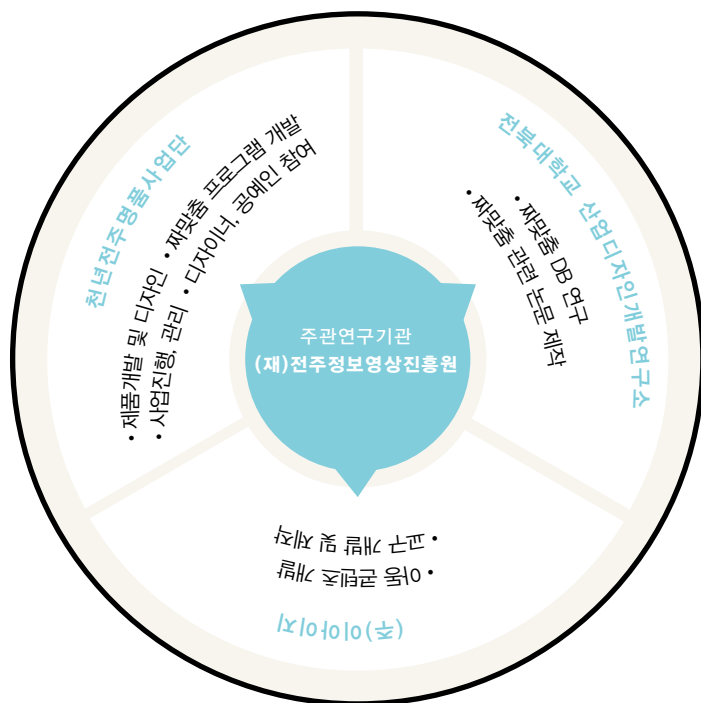
드라마와 Kpop, 한식 등 한류의 열풍이 아시아를 넘어 남미와 유럽까지 휩쓸고 있다. 한국의, 한국인의 콘텐츠가 그만큼 세계인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디자인과 공예품은? 일본에서 막걸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막걸리를 담은 양은주전자와 전통 막걸리잔은 함께 팔리지 않는다. 한류가 대두하는 이때가 바로 전통 공예가 함께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아직까지 전통공예문화는 비즈니스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통공예를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전통수공예품을 명품화하고 전통공예디자인을 세계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드는 북유럽의 경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탄생한 공예디자인들은 이미 우리 삶 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 북유럽 장인들의 작품은 단순한 관상용이 아니라 실생활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계승되어 왔다. 전통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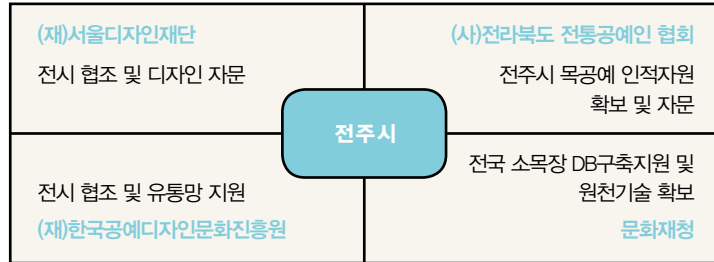
가 그대로 생활이 되고 경제가 되는 경우다.

반면 한국의 전통문화는 일부 명인들과 소수의 전수자들에 의해 어렵게 어렵게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역사적인 상황으로 그 맥이 끊겨버린 경우도 많다. 때문에 전통문화를 온전히 계승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 특히 별다른 교과서도 없이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감각과 기술로 계승되어온 전통공예 분야라면 더욱 그렇다. 전통공예기술의 계승과 현대화, 전주시와 천년전주명품사업단(전주문화재단과 통합)은 쉽지만은 않은 이 과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 사업추진체계 |



| 연계협력체계 |



전통짜맞춤기술, IT를 만나다

전주시는 2007년부터 전통공예의 브랜드화를 위해 사단법인 천년전주명품사업단을 설립하여 천년전주명품 ‘온’브랜드를 지원·육성해 왔다. 사업단은 무형문화재와 디자이너 공동 협업을 통해 전통공예 기술을 지금의 쓰임새로 재해석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통공예의 디자인개발만이 아닌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8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한 지역문화연구센터(CRC)지원사업에 ‘천년전주 전통기술의 지적자산을 통한 산업화 연구’라는 주제로 공모·선정되어 3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었다. 전통공예기술(짜맞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우리전통기법을 활용한 산업화 유도라는 목표를 향해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먼저 전통짜맞춤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구전으로만 이어지던 짜맞춤 기술관련 언어를 통일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했다. 전국의 무형문화재 소목장을 직접 방문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짜맞춤 기법을 수집하고 연구



했다. 단절의 시기가 있었고 지역이 다르다 보니 똑같은 재료나 방식도 다르게 불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 통일은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전주에 거주하는 무형문화재 조석진 소목장과 김재중 소목장의 자문으로 감리를 받으며 최종적으로 76가지 짜맞춤의 기본형을 만들 수 있었다. 전주시지역의 교육컨텐츠기업인 (주)이아이지가 IT(VRML)기술로 이를 홈페이지(www.zamachom.or.kr)로 구축하였고 짜맞춤 기술의 보급을 위해 아동용 교구를 개발·제작하였다.

단순히 전통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작업에서 끝났다면 여타의 전통관련 사업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사업단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DB화된 짜맞춤기술을 설계프로그램인 인벤터S/W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 설계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 것이다. 짜맞춤 활용 가구 디자인 설계프로그램이다. 설계자는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가상현실처럼 직접 화면으로 보면서 만들어갈 수 있다. 원하는 크기와 형태를 입력하면 이에 맞는 짜맞춤기술이 적용되어 제품 설계가 이루어진다. 전통공예기술이 이렇게 IT를 만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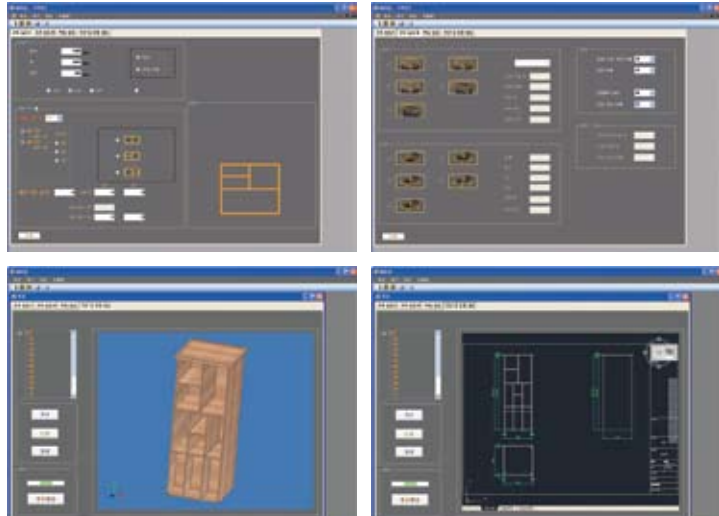


전통짜맞춤 제품

짜맞춤기술의 프로그램화를 위한 산통

상상하는 대로 가구가 척척 만들어지는 모습, 그것도 전통짜맞춤기법으로 만들어져 수려한 멋까지 더해진 가구. 그러나 이런 상상은 아직 이른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설계프로그램은 데모버전 수준이다. 디자인설계자가 전통짜맞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 인 형태의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으나 기술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다. 설계프로그램을 짜맞춤의 DB와 연동하는 과정부터

|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 예시 |



시스템 오류에 부딪혔다. 짜맞춤의 형태를 프로그램언어로 변경하는 작업에만 1년이 걸렸다. 거기에 설계에 필요한 변수 값을 프로그램화 하는 작업도 어려웠다.

이에 짜맞춤의 형태를 프로그램언어로 변경하는 작업을 최대한 줄이고 CAD프로그램을 연계, 도면 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해서 형태를 단순화하고 기능을 축소한 설계프로그램 데모버전이 완성된 것이다. 제품의 설계프로그램이 외국에서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결과다. 이제 기 개발된 설계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해가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추가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상하는 대로 멋진 가구가 똑딱 만들어지는 모습, 이번 사업으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입증됐다.



지속발전을 위한 단초는 사람!

이처럼 가구 디자인 설계프로그램뿐 아니라 짜맞춤 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책을 요청하는 곳이 많아 추가인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되었고, '전통 목재짜임 기술의 분류 및 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공예논총)', 'DIY가구제작에 활용도를 높이는 짜임의 난이도 연구(한국가구학회지)' 등 총 9건의 연구논문도 발표되었다. 한지 발등, 소반, 서류함, 벤치, 테이블 등 짜맞춤 활용 디자인 제품 개발과 아동용 교구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0공예트렌드페어, 2010서울디자인페스티벌 등 각종 전시·세미나 등에 초청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

무엇보다 지역 공예인 네트워크 형성 및 짜맞춤 교육과정을 통한 인재육성은 전통공예사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사업단은 지역내 공예인은 물론 우리나라의 전통 소목장 이수·전수자들과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해 전통공예 기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또 소목 경력자를 대상으로 짜맞춤 전문가과정을 운영한 후 동호회를 구성, 자체 전시회를 개최하고 도록을 제작하는 등 전국규모의 소목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전문가과정을 통해 40여명의 전문인력이 양성되었고 그 중 4명이 창업하였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과 교육생들의 열의로 3기 교육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또 개발한 아동용 교구를 이용하여 공예명인관 방문 아동들에게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맞추기 체험을 실시하여 전통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의 영재캠프를 통해서도 100명 이상의 초등학교생들이 전통짜맞춤 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여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생활



서울디자인페스티벌 및 공예트렌드페어 참가



짜맞춤 전문가과정



짜맞춤 어린이교육

지역은
살아움직인다

전북 전주시



조석진 소목장, 전통짜맞춤 교육영상 중

에 활용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미래 세대가 몸소 체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전통문화사업을 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전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목교육의 장으로서 공예 인력 양성 사업과 시민대상 교육, 체험을 통한 공예인 저변 확대 등 공예의 대중화 사업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암투병도 견뎌낸 소목장의 장인정신

세계기능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조석진 소목장. 한국 성인의 평균보다 1.5배의 큰 손을 가진 명인. 그의 손을 거친 나무는 가구 장인들조차 무릎을 치게 할 만큼 인상적인 목가구로 거듭난다. 그는 전통짜맞춤기술을 얘기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물이다. 이번 전통짜맞춤기술 DB구축사업도 그가 있었기에 닻

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한참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조석진 소목장의 위암 소식이 전해졌다.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전주시와 사업단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조석진 소목장은 예정대로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목가구 만들기에 평생을 바친 조석진 소목장. 위암은 목가구 장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는 작은 실연일 뿐이었을까. 사업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항암치료를 받아가며 자신의 본분을 이어가는 조석진 소목장의 장인정신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조석진 소목장과 전수자들의 역할은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였다. 기법을 분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공개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전문가 교육도 직접 진행해 주었다. 미디어교육교재 제작을 위한 촬영에도 적극 협조하였으며 이번 사업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주었다. 또한 전문가교육 이수생들의 소목 동아리의 멘토로서 여전히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그들만의 ‘어르신’ 마케팅

전통에 대한 큰 사명감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의 알맹이를 만들어준 무형문화재 분들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진행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들이 있다. 무형문화재 분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까지는 사업단의 진효승, 최용관 두 젊은이의 성실한 서포트가 있었다.

무조건 중이를 내밀고 어르신들을 설득한다고 해서 될 일은 처음부터 아니었다. 그 분들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 집안의 큰 어른을 모시듯 공경하는 마음으로 만남

천년전주명품사업단 진효승, 최용관



을 지속했다. 하루종일 본인의 어려운 사정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한 시간 중에 10분 정도만 사업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좋았다. 그 조차도 못 들으면 이 사업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완고하셨던 분들도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젊은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전통을 이어가는 무형문화재 분들과 보존과 계승을 통한 현대화 사업을 이끄는 젊은이들. 이들 사이엔 정서적 동맹의식이 흐르고 있다. 한국적 전통에 대한 나름의 고민과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사명감을 그들은 공유하고 있다. 사업단의 진효승 씨는 “표면적인 전통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는 것들에서 한국적인 것이 나온다”며 “단순한 정량화보다는 체험을 통한 한국적 감성의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공하려면 전주를 배워라



이번 사업의 목표는 무형문화유산이면서도 현대적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자원인 전통공예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통한 지역 발전이다. 이를 위해 전통기법의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제품과 교재를 만들었으며 전문가들을 연계하여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은 창업으로 이어졌고 관련 상품들이 시판되었으며 여러 루트를 통해 다양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상반기에 3,500만원 상당의 제품이 주문 생산되었으며 리빙 제품 유통사와의 계약도 진행 중에 있다). 전주는 천년전주명품 ‘온’ 브랜드 개발 및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이번 전통짜맞춤기술 사업뿐만 아니라 선자장, 단선, 합죽선 등 대나무를 연마하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산업화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실현이다. 선조들의 우수한 전통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장인과 후계자들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계승 발전시키는 일. 전주의 사명의 넘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이 과업을 위해 하나의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전통공예인들이 디자이너나 스타일리스트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지속적인 교육 체험 사업으로 어려서부터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즐거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는 점 등은 특히 칭찬받을 만하다. 무조건적인 대량생산과 이익창출이 아닌 전통의 고유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마인드까지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전주시와 사업단의 다짐이었다. 박물관이 아닌 생활 속에서, 전시물이 아닌 생활용품으로 전통을 만나야 한다는 이들의 목표는 차근차근 실현되어 가고 있다. 전주는 외래에서 온 명품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 ‘명품’이 꽃 피우는 곳, 전주의 미래는 우리의 전통만큼 멋질 것이다.